

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 펼쳐

✎ 추홍식 | ☎ 승인 2025.09.22 16:16

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16일 성주군 초전면에서 '2025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'을 실시했다.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협업해 추진하는 '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'의 일환으로, 노후·불량 주택을 수리해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
성주지사 임직원들은 시공업체를 통한 약 800만 원 규모의 공사 외에도, 선정 가구의 지붕기와강판 교체, 물받이 공사 보조, 내부 가구 이동 및 생활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.

이돈문 지사장은 "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"며 "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추홍식기자 chhs@idaegu.co.kr



추홍식

저작권자 ©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